



# 홍명보 4강 구상 끝났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절제·겸손”... 육체·정신적 준비 끝  
 U-20 월드컵 오늘밤 가나와 빅뱅... 공격축구로 맞대결

“조별리그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또 수에즈는 키이로보다 많이 익숙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절제와 겸손이다.”  
 가나와 200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을 앞둔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8일(한국시간) 결전에 나서는 각오를 밝히고 가나 격파를 위한 비책도 살짝 공개했다.  
 홍명보 감독은 이날 수에즈 아인소크나의 마리나 연습 구장에서 준결승 길목에서 만나는 가나를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훈련에는 21명의 태극전사 중 왼쪽 허벅지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돼 재활 훈련 중인 수비수 오재석(경희대)을

빼 20명이 참가했고 선수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에 이어 패스 연습, 득점 루트를 찾으려는 공간 창출 훈련 등을 진행했다. 홍명보 감독은 훈련을 마친 후 “가나는 3명의 포워드 가 뛰어난 테크닉과 스피드를 지녔다. 아프리카 특유의 스타일이지만 카메룬과 또 다른 강함을 느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가나 공략 대책을 묻는 말에 “가나는 미드필드가 다이아몬드형으로 서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측면이 강하다는 걸 아는 만큼 막힐 수 있어 다른 옵션의 공격 루트를 찾겠다”면서 “상대가 투톱이어서 우리 측면에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좁혀 한 명을 맡는 수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공략하느냐는 내일 훈련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수비에 치중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고 공격이 끝나면 곧바로 수비를 의식하라고 주문한다”며 수세 위주의 경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는 김보경(홍익대)의 공백에 대해선 “그만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장에 나가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 조영철과 이승렬 모두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다. 이들 동안 누가 더 날카로움을 가졌는지 볼 생각”이라며 낙점 기준을 밝혔다.  
 그는 ‘죽음의 C조’에서 탈출했던 ‘악속의 땅’ 수에즈에 돌아온 것에 편안함을 느꼈다면서 “선수들도 익숙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제와 겸손이다. 자신감이 많은 상태다. 기본을 이해하지만 겸손하고 처분하라고 선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매 경기 결승전이라는 생각으로 경기하겠다. 꼭 이겨 팬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너희들이 미쳐야 V10 보인다”

KS 7승투 ‘까치’ 김정수 이을 가을사나이  
 이번에는 이현곤·안치홍 ‘깜짝 활약’ 채비



‘미쳐야 산다.’  
 KIA 타이거즈 스카우트로 활약하고 있는 ‘가을까치’ 김정수는 1986년 한국시리즈에서 나흘로 3승을 챙기며 그해 한국시리즈 MVP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시리즈에서만 7승을 챙기는 등 김정수는 한국시리즈 다승 1위를 지키며 대표적인 ‘가을 사나이’로 꼽힌다.  
 해마다 가을 프로야구 그라운드에는 소위 말하는 ‘미친선수’가 등장하곤 했다. 한국시리즈에는 피 말리는 승부와 함께 깜짝 스타의 탄생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선수단 사이에서 2009년 한국시리즈 MVP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은 내야수 이현곤이다.  
 이현곤의 시즌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다.  
 유격수 자리를 지키며 내야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0.253의 타율로 33타점, 2홈런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가을잔치를 준비하는 이현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동재·최태원·장종재 코치는 야구동성으로 이현곤을

〈이현곤〉

‘가을 사나이’로 꼽는다.  
 타격감이나 밸런스가 최고조에 이른 이현곤은 열정적인 자세로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돌보이는 1인이 됐다. 2007년 타격왕 출신답게 시즌 부진을 만회해주기를 바라는 코치진들의 심정이 더해진 결과다.  
 이현곤의 절친한 친구 최희섭은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는 오른손잡이들이 활약을 할 것 같다”면서 컨디션이 최상에 오른 이현곤을 주목하고 있다. 최희섭은 김상훈·안치홍의 활약도 예상했다.  
 최희섭의 생각처럼 신인 안치홍도 기대를 모으는 인물 중 한 명. 신인답지 않은 배포로 눈길을 끈 안치홍은 서울고시 절부터 극적인 활약으로 유명세를 탔던 선수다.  
 프로데뷔 첫 해 올스타전 MVP까지 거머쥐는 등 KIA의 극적인 순간에 안치홍이 있었다. 내심 겁없는 신인 안치홍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90년대 무서운 신인으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했던 이종범도 “어린 후배들의 활약이 기대된다”면서 안치홍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올 시즌 공포의 중심타선을 이루었던 김상현·최희섭에게 견제가 집중되는 틈을 타 스타탄생을 노리는 인물도 있다. 황병일 타격 코치는 깜짝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인물로 2년차 거

포 나지안을 언급했다. 황 코치는 “3번 타자가 KIA 우승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는 전망도 내었다.  
 25년동안 8번의 우승을 함께한 타이거즈의 산증인 윤기우 운영부장은 장성호의 쇼를 기대하고 있다.  
 조병현 감독은 8일 오후 6시 청백전을 갖고 ‘가을 사나이’ 후보들을 점검했다. 그 결과는 9일 26일 엔트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1군 합류... 포스트시즌 부활 다짐

허리 통증으로 두 달 넘게 2군에 내려가는 등 올해 최악의 시즌을 보낸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반드시 부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는 8일 인터넷판에서 지난 8월3일 허리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간 지 65일 만인 7월 1군 훈련에 합류한 이승엽이 200여개의 연습 스윙을 휘두르며 클라이맥스시리즈 출전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요미우리가 3년 연속 센트럴리그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2군에서 지켜봐 왔던 이승엽은 “팀의 우승은 좋은 일이지만 마음은 무거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21일 시작되는 클라이맥스시리즈 스테이지2에서 정규리그 2,3위 팀 승자와 일본시리즈 출전권을 놓고 대결하며, 이승엽은 승부처에서 왼손 대타로 기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치홍〉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후 말 통입니다 2. 배후 말 통입니다 3. 배후 말 통입니다

**국제보청기**  
 www.kint.com

본점 (062) 227-9940  
 분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